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이 달에 우리는 특별히 슈발리에 신부님의 선종 116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생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신부님께서는 걷기가 힘드셨는데도 마을 끝자락까지 걸어가셔서 이전에 때때로 방문해서 관대한 도움을 베푸셨던 한 가난한 무의탁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증언 71, 클로드 헤리올 신부의 메모). 줄 슈발리에 신부님은 그분 수도회의 사명을 모토인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성심 전교회(MSC)에 이어 두 개의 여성 수도회, 즉 예수성심의 어머니 딸 수녀회(1874년 8월 30일)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1900년 3월 25일)가 설립되었습니다. 평신도들도 현재 우리가 부르는 명칭인, "슈발리에 가족" 안에서 그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영적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해야 하는 엄청난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영적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예수성심 어머니께" 9일 기도를 바치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서재에서 나는 오랫동안 자주 사용한 나머지 너무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예수성심의 어머니께 바치는 9일 기도"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증언 71, 클로드 헤리올 신부의 메모)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비할 데 없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분이 취하시는 모든 발걸음에는 연민이 수반되며... 그분의 권능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성심, 200). 슈발리에 신부님은 그의 수도자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덕목으로 사도직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들은 쉬이 인도되고, 목자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목자를 알아보고 그를 따릅니다..." (M I 525-526).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MI 525).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진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특히 자신을 의심하여 부르주 대주교에게 고발한 동료들에게도 용서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고,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을 부르주 대교구의 참사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From Fifteen Days of Prayer with Jules Chevalier, Fr. André MAYOR, MSC, Seventh Day).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교회 선교 활동의 시급성은 당연히 모든 교회 구성원들과 모든 수준에서 더욱 긴밀한 선교적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키워드에 따라 교회가 수행해 온 시노드 여정의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이 여정은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도 아니고, 인간의 선호도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길을 떠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빵을 떼어 주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선교의 날 교황 프란치스코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슈발리에 신부님이 MSC라는 작은 수도회를 시작할 때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수도회 사제, 교구 사제, 수녀들, 수사들, 평신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슈발리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노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시노드적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주의 바이러스를 피해야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교회와 선교의 모든 폐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체성사가 우리의 영성과 선교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성사를 얼마나 잘 거행하고 있습니까? 전례적으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과 미사 밖에서 성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이달의 기도

하느님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은 인류를 향한 당신 사랑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줄 슈발리에 신부님을 따라, 우리는 찢린 심장에서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봅니다. 그의 불타는 선교 열정이 저희로 하여금,

충실함, 온유함, 겸손함, 한계 없는 자기 내어줌의 정신으로

당신 아들의 선교사가 되도록 영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참여자이자 증인"으로 만드셔서 세상이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예수성심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안에서 성모님께서 기도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당신의 부르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듣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05년 MSC 국제 총회 기도문에서 발췌.)

